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분석

차 영 란 김 기 범[†] 전 경 숙
수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40, 50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의 생활 기록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고, 자기정체감과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삶의 만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역할에 따른 자기정체감 확립이 중년여성들의 만족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8명의 4, 50대 중년 여성들(가정주부, 직장여성)의 일상에서 시간대별 수행과 역할에 대한 규정, 수행 장소 및 사회적 관계와 만족도를 기록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40대의 경우 직장여성들은 사회인 혹은 직장인이라는 역할 증가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한다는 역할 의무감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버거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50대 여성들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계발을 통해 정체감 확립이 나타나고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정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의 중년기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예를 들면, 40대, 50대, 직업별)이 필요하고, 중년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과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구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어 : 중년여성, 사회적 역할, 행복, 삶의 만족, 자기정체감

[†] 교신저자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E-mail : purple66@skku.edu

여자나이 40이면, 중년기에 접어들어 곧 늙게 되고 젊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인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모양이다. 1900년만해도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했는데, 여성들은 자녀들이 출가하는 것을 볼만큼 오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문화권에서는 중년에 접어든 여성들이 나이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나이가 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예술, 문학, 매체 및 심리학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다(Fodor & Franks, 1990). 게다가 성별에 따라 나이가 든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중적인 잣대로 보게 되는데, 여성들이 나이 40이 되면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남성들이 중년기에 접어들면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동양문화권에서도 나이 40이면 불혹(마흔)살은 무엇에 마음이 흘러 헛갈리지 않는 나이)이라 하였지만, 이는 다분히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치사였고, 여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덕목을 지키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지향했으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아줌마’라는 제 3의 성을 가진 사회적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년의 삶에 대한 혹은 중년 여성에 대한 시각은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밝혀 온 사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어 이른바 노화기피증(aging phobia)에 시달리는 중년들’, ‘육체기능 저하, 정신적 허탈감과 중압감...’, ‘남편의 무관심과 자녀 성장으로 가정내에서 역할이 줄어들어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중년 여성’(경향신문, 2006년 4월 24일자, 중년의 반란 노화기피증 ‘날 더 이상 아줌마라 부르지마’) 등이다. 그러나 반면에 아저씨, 아줌마로 불리길 거부

하는 중년층을 일컬어 ‘노무족(No-more uncle)’, ‘줌마렐라(아줌마+신데렐라)’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중년층의 외모관리 신드롬과 관련하여 ‘Now(New Older Women)’족, ‘샹그릴라 신드롬’ 등 젊게 늙고 싶은 여성들의 꿈을 꼬집는 마케팅 용어도 등장하였다.

심리학 분야, 특히 발달심리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특정 연령대(예를 들면, 35세에서 50대)에서 겪게 되는 발달상에서의 변화(예를 들면, 성인기에서 중년기¹⁾)로 지칭하는 ‘삶의 위기’론과 45세에서 55세의 여성들의 폐경기, 빈둥지 신드롬, 우울 등의 ‘주요 생활사건’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틀과 접근들이 있어왔다(Neugaten, 1968, Fodor & Franks, 1990 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일찍이 Jung에서부터

1) 일반적으로 인생에 있어 중년기는 40세에서 60세(혹은 65세)까지의 시기로, 신체-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발달단계상의 한 시기인 중년기는 정신적 성숙과 성격발달, 자기정체감 확립, 사회적 성취 등의 ‘황금기’로 규정되거나 신체-생리적 감퇴, 정신적 공허, 역할 상실 등에 따른 소외감, 위기, 상실감(Stewart & Ostrove, 1998) 등의 심리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부정적 신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한국문화에서는 ‘아줌마’라는 사회적 기호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아줌마 속에서는 중년 여성의 역할 상실(단지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스테마만 존재한다), 신체-생리적 감퇴(예를 들면, 제 3의 성), 남성 권력유지와 우월주의에 의한 무시 등이 혼재되어 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중년 여성들의 주류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로, 가족계획에 따라 대부분 자녀수 1-4명의 가정에서 자랐다. 자녀수가 적다보니 중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이 주어졌고, 대부분 고등교육이상이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Stewart와 Ostrove(1998)에 이르기까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중년여성들을 위한 전생애적 발달에 관한 문헌이나 지침서는 없다. 또한 현재의 중년여성들과 관련된 통합된 발달심리학적 이론이나 연구는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더불어 서구문화에서는 전생애 발달에 대한 연구가 주로 백인이고, 결혼했으며, 중산층이고, 이성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심리학자들의 중년에 대한 혹은 중년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접근과는 달리, 최근에는 중년여성의 빈둥지 증후군이 하나의 신화였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결과(Kahneman, Diener, & Schwartz, 1999, Compton, 2005에서 재인용)를 보면, 만족도가 신혼기에 가장 높다가 자녀가 출산하면서부터 떨어지는데, 평균적인 만족 수준은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같은 하락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최저점에 도달하나, 아이들이 출가하면서 부부들은 다시금 단둘이 남겨지고 양육의 의무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그들의 결혼에 대한 만족은 결혼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행복과 삶의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변인이다(Compton, 2005).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집단을 위한 삶을 개척하기 위해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게 되고, 지지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관계의 질이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지를 결정하는 중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Dinner, Suh, Luca, & Smith, 1999).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친

밀감을 얻음으로써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은 가정에서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 약화를 경험한다면 가정밖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대되는 역할(예를 들면, 친구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한다면 삶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부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규정되거나 기대되는 역할을 중년기에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생성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금운, 윤가현, 1998 참조).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규정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기정체감을 갖게된다(Burr, 2002).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가 함유된 개체 혹은 사회와 무관한 개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기본 가정과 배치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이렇듯 자기개념은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처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자기와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기범 등, 2006; 이경혜, 김언주, 2001; 조혜자, 방희정, 2006; 최효일, 조혜자, 1999; James, 1890/1961; Ratner, 2002; Stewart & Ostrove, 1998)²⁾. 따라서 사회적 관계속에서 규

2) 사회적 역할과 자기정체감과의 관계는 James (1890/1961)부터 문화심리학자인 Ratner(2002)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로, 역할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과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속에서 행위의 규칙

정되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여성의 경우 역할 정체감이 자기개념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삶의 전환과 가족제도내에서의 역할 변화 및 이에 따른 적응에 따른 정체감 통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양육과 배우자 뒷바라지에 국한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 모색 및 수행에 따른 정체감 확립 혹은 통합의 재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Stewart & Ostrove, 1998).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타인과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이다(조혜자, 방희정, 2006).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동특질로서 자기나 성격이론들은 맥락이나 시간, 상황 및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이론과는 달리 인간에 대해 맥락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 의해 항상 행동하지 않으며 가치와 느낌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변한다고 주장한다. 역할안에서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표현적이고 진정하거나 자기결정적이라고 느끼는 방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Deci & Ryan, 1985).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상황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이 변화는 체계적이고 의미있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황과 역할에 대해 사람들이 진정성과 의미³⁾를 느끼게 되면 행복을 경험할

에 따른 사회적 제도와 문화적 활동이 사회적 역할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사회적 역할은 자기라는 심리적 개념으로 귀결된다(Ratner, 2002).

3) 역할의 진정성은 연구자에 따라 경험의 질(김금윤, 윤가현, 1998), 보상/비용(신기영, 옥선화, 2000; Norton et. al, 2002), 혹은 중심성/중요성(Norton

수 있다(이경혜, 김언주, 2001; 신기영, 옥선화, 2000; Norton, Stephens, Martire, Townsend, & Gupta, 2002; Sheldon, Ryan, Rawsthorne, & Ilardi, 1997).

요약하면, 중년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지만, 사회, 문화 및 제도의 변화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관계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정체감을 통합하고 확립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김금윤, 윤가현, 1998; 이경혜, 김언주, 2001; Sheldon, Ryan, Rawsthorne, & Ilardi, 1997; Stewart & Ostrove, 1998). 다시 말해, 가정, 직장 및 일반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및 자기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Kitayama, Markus, & Matsumoto, 1996; Sheldon, et al, 1997). 물론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년여성들이 역할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혹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1990년대 미국의 여성주의론자들, 전생애 발달심리학자들과 임상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들, 특히 주저자가 여성인 논문들의 다수는 질적인 접근법들을 사용하였고, 연구자들 중 소수만이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중년여성들의 삶을 다룬 대부분의 질적 연구방법들은 면접과 질문지를 병행하여 사용했고, 개인의 이야기(narrative), 담론 등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조사대상자들은 여전히 대부분 백인의 중산층 여성들이었고, 비교문화연구 또한 드문 편이었다(Fodor & Franks, 1990). 또한 같은 시대에 태어나 자라나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사회화된 성인 여성들(adult cohort population)을 et. al., 2002)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상으로 한 (중단적)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중년여성’이라 불리는 대상들의 심리적 특성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수행되는 역할과 이에 따른 규정 및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방 법

본연구에서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표집하여 기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종의 행동표집으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일상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 반응을 얻음으로써 일상의 경험속에 있는 사회적 관계와 역할 규정 및 이에 대한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다.

조사대상자

4, 50대 중년 여성 38명(평균연령 49세)이 참여하였고, 이중 40대가 18명(평균연령 44세), 50대가 20명(평균연령 54세)이었다. 직장여성이 20명(평균연령 50세)이었고, 가정주부가 18명(평균연령 49세)이었다. 40대 여성 중 9명(평균연령 44세)이 가정주부였고, 직장인은 9명(평균연령 44세)이었으며, 50대 여성 중에는 가정주부가 9명(평균연령 55세)이었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모두 11명(평균연령 53세)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40대 중 3명이 교사였고, 4명은 교수, 자영업 1명, 회사원 1명, 그리고 가정주부 9명이었다. 50대는 교사가 8명, 회사원 2명, 사장 1명, 주부 9명이었다.

조사도구 및 절차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의 활동 기록은 경험표집법과 매우 유사한 것이나, 시간대별로 행동 및 정서경험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상재구성법(DRM)과 더욱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일상기록표를 배부하여 연구에 참여하기 전날의 하루 일과에 대한 자기 보고를 시간대별로 하고, 각 활동에 대한 역할 규정 및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그 활동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분석은 일차적으로 수집된 일상의 생활기록을 연령대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분류하였고, 집단별-사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활동에 대한 만족 평가를 5점 척도로 환산(예를 들어, 매우 만족한다는 5점, 만족한다는 4점, 불만족이라는 2점 등)하여 기록하여, 연령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반적으로 직장 여성들의 경우 40대이건 50대이건 역할의 수는 가정주부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들의 역할수행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대 보다는 40대가 역할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여성들이 가정주부들보다 역할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 면에서는 40대나 50대

표 1. 중년여성의 연령대별, 직업별 역할 수와 만족도의 차이

역할의 수			역할의 수		
40대 (N = 18)	50대 (N = 20)	t	가정주부 (N = 20)	직장여성 (N = 18)	t
4.2	3.1	3.0**	3.2	4.0	-2.01*
만족도			만족도		
40대	50대	t	가정주부	직장여성	t
25.4	24.5	n.s.	26.1	23.8	n.s.

* $p < .05$, ** $p < .01$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주부와 직장여성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역할의 수 및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령과 역할의 수 간에는 역의 상관($r = -.48$,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만족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r = .01$, n.s.)으로 나타났으며, 역할의 수와 만족간의 상관($r = .29$, n.s.)도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역할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고, 직장여성들이 가정주부들에 비해 수행하는 역할의 수는 많지만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실시하여 분석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가 일상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따른 역할규정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및 만족과의 관계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이에 대한 역할 규정에 따른 자기 구성의 과정을 분석하고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변수간의 상관이나 집단간 차이 등의 양적 접근으로는 불충분하

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중년여성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48세의 이 여성은 남편과 딸, 아들 둘로 구성된 가정의 주부로, 오전 5시 40분에 기상하여 2학년인 딸을 깨워 아침밥을 준비해서 6시 30분에 학교에 보내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이때 이 중년여성의 자신의 역할을 엄마로 규정하였고,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남편과 나머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계속된 엄마의 역할을 수행(집안청소, 세탁물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부터 자신의 취미활동을 시작하였고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후에도 계속되는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 여성의 자신스스로 규정한 역할은 주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이었고, 활동 영역은 주로 집과 근처였으며, 상호작용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었고, 자신의 역할과 수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주부인 40대, 50대 중년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상의 활동은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에 따른 수행이었고, 사회적 상호작용도 가족 구성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의

경우 전형적인 현모양처, 가정주부의 역할 모델로 가족생활속의 역할 정체감이 자기개념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40대이고 직장을 다니는 중년여성(남편, 딸 2)의 경우 오전 6시 30분에 기상과 더불어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주부의 역할로 시작하였고, 본인도 출근준비를 하여 식사를 마친 후 출근하였는데 자신의 역할과 수행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출근후 오전과 오후에는 근무지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주부로서의 역할수행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들이 잠을 잔 후에 본인의 시간을 갖게되었을 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의 경우 가정주부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주부'로 규정하였고,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조금함과 답답함, 의무감에 따른 중압감, 바쁘다는 것 등을 들었다. 반면에 직장생활에서는 다양한 교류활동과 연구활동으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에 대한 기쁨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는 달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특히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의무감 등으로 두 역할수행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의 가정주부(남편, 아이들 2)의 경우, 기상과 더불어 시작된 엄마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은 부엌일과 아침식사 준비, 집안 청소 등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만족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림질과 집안 청소 등의 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불만족했고, 친구들과 만나 잡담을 나누거나 점심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친구로서의 역할수행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다시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장보기, 저녁 준비, 설거지 등)할 때에는 만족하지 않았다. 저녁식사 후 TV를 보거나 도서를 할 때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역할을 '본인'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여성의 경우 아내 혹은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시에는 만족하지 못했으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와 자신을 위한 활동에 따른 역할이 자기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51세의 여성(남편, 딸 1, 아들 1)의 경우, 일상에서 만족하는 경우는 아침준비, 출근준비, 집안일, 독서 등이었고, 이러한 수행을 엄마, 아내, '나'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반면에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직장에서의 업무, 점심시간 등 직장생활이었고, 이때의 역할은 직장동료로 규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40대 직장여성과는 달리 이 여성은 직장생활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 본인의 역할인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 정체성이 자기개념 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지금까지 예를 든 사례들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 전체의 일상의 활동과 역할 및 만족의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40대 가정주부들의 경우, 만족감을 느끼는 활동으로 '집안일', '여가', '독서', '운동', '친구만나 수다떨기', 'TV보기' 등으로 나타났고, 역할은 엄마, 아내, 자신(혹은 나)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들의 경우 집안일이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따르지만 만족하거나 행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나' 혹은 '자신' 등으로 역할을 규정

표 2. 집단별 사회적 역할과 만족의 내용

40대 가정주부		40대 직장여성		50대 가정주부		50대 직장여성	
활동	역할	활동	역할	활동	역할	활동	역할
아침준비	엄마	직장생활	사회인	친구만나기	친구/본인	아침준비	엄마/아내
취미활동		집안일	주부엄마아내	저녁식사	주부/엄마	직장생활	직장인
집안일	아내/엄마	산책	본인	TV시청	본인	운동	본인(자신)
여가/봉사		퇴근후장보	주부	독서	본인	장보기	엄마/아내
독서	자신	기		아침준비	아내/엄마	저녁식사	아내/엄마
운동	나(여성)	운동	나(자신)/아내	집안일	아내	TV보기	아내
TV보기	나, 아내	아침준비	주부아내엄마	공부	나자신	독서	나
친구만나기	나	저녁식사	주부	산책	나자신	산책	?
		TV시청	개인	털발가꾸기	엄마아내		
		교회활동	나	운동	나		
				맛사지	나		

한 독서, 운동, TV보기 친구만나기 등 가정밖의 사회적 활동이나 가정안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의 가정주부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되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가정밖의 자신의 모습이나 가정내에서 엄마, 아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모두 자기정체감형성이나 자기개념 구성이나 해석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0대 직장여성의 경우, 가정주부들과는 달리 직장생활에 거의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의 자신의 역할은 사회인이나 특정 직종의 직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아침과 출근준비 등을 하는 아내 혹은 엄마로서의 역할에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후 저녁준비 등의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직장 여성들의 경우 바쁜 사회생활과 더불어 비교적 어린 자녀들을

표 3. 집단별 사회적 역할과 불만족의 내용

40대 가정주부		40대 직장여성		50대 가정주부		50대 직장여성	
활동	역할	활동	역할	활동	역할	활동	역할
급식조리보조	파트타임어	아침준비	아내엄마	집안일	아내엄마주부	시어머니간호	며느리/아내
아이잔소리	엄마	출근준비	주부	저녁준비	주부	직장생활	사장
간식/숙제	엄마	집안일	엄마/아내	아침준비	아내엄마		
장보기	엄마/아내	저녁준비	엄마/아내				
		잠자기	나				

들봐야 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40대 가정주부들과는 달리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을 주부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정일을 해야한다는 부담과 함께 가정일은 주부가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주부들은 가사노동을 주부라는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엄마, 아내라는 가족구성원 역할로 규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50대 가정주부의 경우 기본적인 가정내 역할 등에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일(예를 들면, 여가, 운동 등)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본인’이나 ‘나(자신)’ 등의 역할로 규정하여 40대 가정주부들보다 자기 찾기 혹은 자기 계발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장여성들의 경우 직장인 등의 사회인이라는 역할 규정 이외에 다른 역할은 없었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모두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여서 그런지 비교적 두 가지 역할에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이나 ‘나(자신)’으로 역할을 규정하여 자기개념화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다.

종합하면, 40대의 중년여성들은 ‘엄마’, ‘아내’, ‘주부’, ‘직장인’과 ‘나(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에서는 ‘엄마/아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주로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 50대 중년여성들도 주로 40대 여성들과 같은 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여 주부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 중 ‘나’와 ‘엄마/아내’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고, ‘엄마’로서의 역할은 만족과 보통이라는 반응이 비슷하였다. 반면 40대 직장 여성들은 ‘주부’, ‘직장인’과

‘나(개인)’으로서의 역할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직장을 가진 40대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에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근 전과 출근 후 가정에서의 아내 혹은 엄마로서의 역할에는 비교적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직장생활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과 남편에 대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의무감이 혼재되어 있고, 가사를 전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40대 직장여성들의 경우 사회인 혹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정체감이 자기개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가정에서의 역할은 아침 식사, 출근, 저녁 식사 등의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만족할 가능성도 높고 역할 수행에 따른 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50대 직장 여성들은 ‘작장인’으로서의 만족도가 다른 어떤 역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와 ‘엄마/아내’로서의 역할 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돌봄의 의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모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계발이나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문화에서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일상의 활동과 역할과의 관계, 역할과 정체감의 관계, 그리고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상 생활의 기록하게 하는 질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4, 50대 중년여성 38명을 대상으로 한 일상 생활의 기록 분석 결과, 사회적 역할의 수는 50대 보다는 40대가, 가정주부보다는 직장여성들이 더 많았으나 만족도 면에서는 각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할의 수는 줄어들었고, 연령과 만족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와 직업의 유무에 따라 집단별로 일상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 및 만족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40대의 가정주부들은 일상의 생활(예를 들면, 집안일, 여가, 독서, 운동, 친구 만나기, TV 보기 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한 일상의 활동에 대한 역할 규정을 엄마, 아내, 친구 등으로 규정하였고, 운동이나 독서 등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역할은 '나' 혹은 '자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과 역할은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역할에서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동, 독서, TV 보기 등에서는 남편이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어 사회적 관계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관계 혹은 역할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김기범 등, 2006; 조혜자, 방희정, 2006; Stewart & Ostrove, 1998; Ratner, 2002 등)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4, 50대 가정주부들은 역할 규정과 수행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집안일도 만족할 때가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적고, 가정생활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중년의 직장여성들, 특히 40대 여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아침 기상과 더불어 가족들의 아침준비와 본인과 남편의 출근 준비, 자녀들 챙기기가 버거워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생활이나 퇴근 후 가족과의 저녁 식사나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역할과 만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에, 50대의 중년 직장여성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대한 익숙함 때문인지 불만족의 정도가 40대 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불만족을 경험하는 일상의 활동과 역할의 내용을 보면, 주로 자녀 교육문제, 아침 준비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정주부들의 경우 일상화된 가사노동에 따른 지루함과 가사노동의 분담, 자녀나 남편에 대한 의무감 등이 주 원인인 듯하다. 반면에 직장 여성들의 경우 직장생활에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기상과 더불어 시작되는 가족 구성원들의 아침과 출근 준비 및 본인의 출근 준비로 인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들과는 달리 직장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의 생활과 역할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정주부들은 주로 가정 밖의 활동, 특히 친구나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 및 운동 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이나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금 현재의 중년 여성들이 비교적 풍요로운 가정

에서 자라 고등교육을 받았고, 현재 사회의 분위기에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생활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이를 지원해주거나 장려할 정책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요약하면, 한국의 중년여성들은 가정에서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나 자신’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중년기가 사회제도적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갖는 시기가 아닌, 가정과 직장속에서 주어진 혹은 선택한 사회제도적 역할과 관계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찾고자하는 데서 비롯된 자의식적 만족을 느끼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먼저 적은 수의 표집을 통해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 중년 여성들에게 적용할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질적 접근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다. 질적인 면접 연구에서는 피면접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향이 있는데, 만일 피면접자의 수가 너무 적다면 일반화가 불가능하고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힘들게 된다. 만일 그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면접 내용에 대한 해석이 힘들게 된다. 그러나, 심리학의 역사를 보면 연구의 목적이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일 때 비교적 적은 수의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 인터뷰 연구에서는 피면접자의 수가 15±10 인 경향이 있다(Fontana & Frey, 1994; Kvale, 1996, pp. 101-103).

두 번째로, 일상의 생활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대한 기록을 시간대별로 하였고 조사 직전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회상과정에서는 나타는 오류나 편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자료분석의 주관성이다.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게 마련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연구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분석자간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분석의 주관성을 최소화했다.

네 번째로 최근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주관적 안녕감 혹은 심리적 안녕감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안녕감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인 개인차 변인 이외에 사회적 제도나 환경 등이 개인의 행복과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여성의 중년기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예를 들면, 40대, 50대, 직업별)이 필요하고, 중년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과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구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의 활동속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이에 대한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각 역할의 중요성과 개인차 및 가정 환경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만족이나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6년 4월 24일자, 중년의 반란 노화기피증 ‘날 더 이상 아줌마라 부르지 마’.
- 김귀분, 유재희, 이은자 (2002). 중년 여성의 위기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2(3), 305-316.
- 김기범, 전경숙, 차영란 (2006). 한국중년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행복.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6-207.
- 김금윤, 윤가현 (1998). 중년기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생성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88-102.
- 박금자 (2002).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영향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32-243.
- 신기영, 옥선화 (2000). 중년기 기혼 취업 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52.
- 이경혜, 김연주 (2001). 중년여성의 역할적응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57-176.
- 조혜자, 방희정 (2006). 한국 중년여성의 관계적 자아. *한국여성심리학회 하계심포지엄*.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한국 아줌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27-347.
- 최효일, 조혜자 (1999). 한국 중년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 여성적, 남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29-140.
- Burr, V. (2002). *The person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Focus.
- Chan, R., & Joseph, S. (2000). Dimensions of personality, domains of aspi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347-354.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Australia: Thomson.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Plenum.
- Diner, E., Suh, E. M., Luca,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Fodor, I. G., & Franks, V. (1990). Women in midlife and beyond: The new prime of life?.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4, 445-449.
- Fontana, A., & Frey, J. H. (1994). Interviewing: The art of science.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362-376).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Kitayama, S., Markus, H. R., & Matsumoto, H. (1996). Culture, self, and emotion: A cultural perspective on self-conscious emotions.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439-464). NY: The Guilford Press.
-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Norton, T. R., Stephens, M. A. P., Martire, L. M., Twonson, A. L., & Gupta, A. (2002). Change in the centrality of women's multiple roles: Effects of role stress and rewards. *Journal of Gerontology*, 57(1), 52-62.

- Ratner, C. (2002). *Cultural psychology: Theory and method*.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Sheldon, K. M., Ryan, R. M., Rawsthorne, L. J., & Ilardi, B. (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380-1393.
- Stewart, A. J., & Ostrove, J. M. (1998). Women's personality in middle age: Gender, history, and midcourse cor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53(11), 1185-1194.
- 1 차원고접수 : 2007. 6. 27.
심사통과접수 : 2007. 9. 17.
최종원고접수 : 2007. 9. 26.

An Analysis of Social Role and Satisfaction of Korean Middle-Aged Women

Young-Ran Cha

University of Suwon

K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Kyung-Sook Jeon

Chung-A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ole and self-construction and between social role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everydaylife self-recoding data. A total of 38 middle-aged women w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report their everyday lives according to time, place, activity, role-definition,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working women were conducting more roles than housewive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and between 40s and 50s. More specifically, 40s working women dissatisfied with their housework, whereas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 This result indicated that working women were likely to have a burden of caring and nurturing their family members as well as working at working place. However, they reported that they satisfied with family members to have dinner and watch TV after work. Regardless of their ages, most middle-aged women tended to have their own time for leisure, physical training, and reading in order to develop and integrate their own identities. Thus, well-defined identities were associated with well-being for women.

Key words : Middle-Aged Women, Social Role,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Identity, Everyday Life

〈부록〉 표 1. 조상대상자의 역할 내용과 만족도 빈도

만족도 역할	40대 주부(N = 9)							40대 직장인(N = 9)							50대 주부(N = 9)							50대 직장인(N = 11)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우만 족	기타 표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우만 족	기타 표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우만 족	기타 표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우만 족	기타 표현
나	3	9	1				행복	1	7	1	2			힘들지만 뿌듯, 지침, 쓸쓸함, 덤덤, 즐겁다	2	11	6				행복*7	2	9	2				편안함
엄마	1	8	9	2		2		1	1							1					너무바쁨 지겹다							큰부담 없음
엄마/아내		8	5	1				2		4	2		1		2	6	3					8	2					그저 늘하는일, 바쁘다
아내	1	1	1					2						2								2	3					
나/아내	1		1											1								2						
나/아내/엄마	1																											
주부			1					6	3	3	1											2						
엄마/주부	1							1		1												1						
주부/나								1	2																			
엄마/주부/나	1																											
직장인								2	5	14				무료함, 좋다, 항상바쁨, 즐겁다								18	7	3		5		즐겁다
나/직장인																						1						
주부/직장인								1														1						
엄마/아내/자식									3			1	행복*2, 힘들									2						
자식/아내																												짜증
엄마/아내/직장											1											1						
직장/친구								1																				
학생										3																		
직장/학생								2																				
학생/엄마								1																				
교회회원(부녀회)								1					뿌듯		2													
동료								1																				
친구																						1					1	
엄마/이모																												
선생님														흡족 행복, 힘들다														
부업			2	1																								
스치는 사람																							1					
가장														힘들다														
계	6	29	20	4	0	2		7	29	30	8	2	2		2	16	15	3	0			2	48	15			6	